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성령강림주일: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② 교제: 예배 후 교제를 위해 고명분 할머니(이경자권사 母) 가정에서 구순 감사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③ 모임: 2 남산교회, 3 여선교회 월례회는 친교 후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④ 협조: 오늘은 St David's 교회 행사 관계로 혼잡함이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⑤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City Mission 섬김
▷밀알장애우 봉사

6월 교회일지

선교수요일(루마니아) :
6월 8일 (수요일)

성령강림주일:
6월 12일 (주일)

성찬주일:
6월 26(주일)

공동체주관수요일:
6월 29(수요일)



교우 소식

6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5일	정관영	장연식	김현주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2일	박일영	방명아	심창진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9일	현석호	원미경	진혜령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6일	고성일	최장한	공동체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 | | |
|--------|-------------------------------------------------------------|
| 환자를 위해 | 1.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기섭 형제가 음식을 섭취를 잘하여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을 찾도록 |
| 가정을 위해 | 1.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 직업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화목과 생업문제가 해결되도록 |
| 교회를 위해 | 1.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담임목사 | : 이태한 |
| 부목사 | : 심창진 |
| 교육전도사 | : 진혜령 |
| 시무장로 |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
| 은퇴장로 |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재용 |
| 지휘 | : 신경화 |
| 반주 | : 송민영, 유지선 |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6월 12일

주보 13권 24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를	시편 66:8-9, 20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43장 (57장)	다함께
*성서교독	30(18). 시편 67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303장 (403장)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로마서 5:1-11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우리가 아직...	이태한목사
찬송	304장 (102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박일영 장로 6월 26일: 고성일 집사

지난주일통계 | 1부 112명 2부 20명 학생부 26명 아동부 15명 유아부 13명 총계186명

건축헌금
지난주: \$1,821.90
총계: \$593,991.87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방명아집사	
성경봉독	살전 4:7-12	인도자
설교	하나님의 부르심	심창진목사
찬송	부르신 곳에서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원미경집사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김현주집사	
성경봉독	계시록 22:6-12	다함께
설교	속히 오리라	이태한목사
찬송	176장 (163장)	다함께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최충일집사
다음 수요기도: 심창진목사

갈보리 칼럼

세상과 연합하지 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요14:17).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는 교회와 세상이 서로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갈급한 심령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다.

상반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격을 메워보려고 이 둘 사이에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결합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의 연합은 실상 불가능하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가련한 잡종에 불과하다. 이것은 주께 가증한 것이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오늘날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의 교훈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명확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혼란을 느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과 너무나 뒤엉켜버렸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약성경의 교훈에서 근본적으로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신자인 체하는 소경들은 회칠한 세상을 보고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기를 쓴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과 세상은 서로 양보하며 사이좋게 지낸다. 그렇지만 세상은 속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경멸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회 명부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 Aiden Wilson Tozer 목사-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적이다. 아무리 많은 고위 성직자들이 나서서 애를 쓴다 해도 육이 영적인 것으로 바뀔 수는 없다. 학습문답, 세례, 성찬 그리고 신앙고백 같은 것들을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아담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요, 육이 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 4:6)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 (고후 13:5).

또한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 8:9)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터부(taboo)시하고 동 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세상은 악하고 그리스도인은 선하다는 이원론에 사로 잡혀서는 안된다. 세상이 분명 악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시켜야할 대상이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산이나 사막 인적이 드문곳에서 세상과 두절된 채 살아 가야 할것이다. 그리스도인든 분명 세상과 연합을 해서는 안된다.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경은 요한복음 17:16-17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